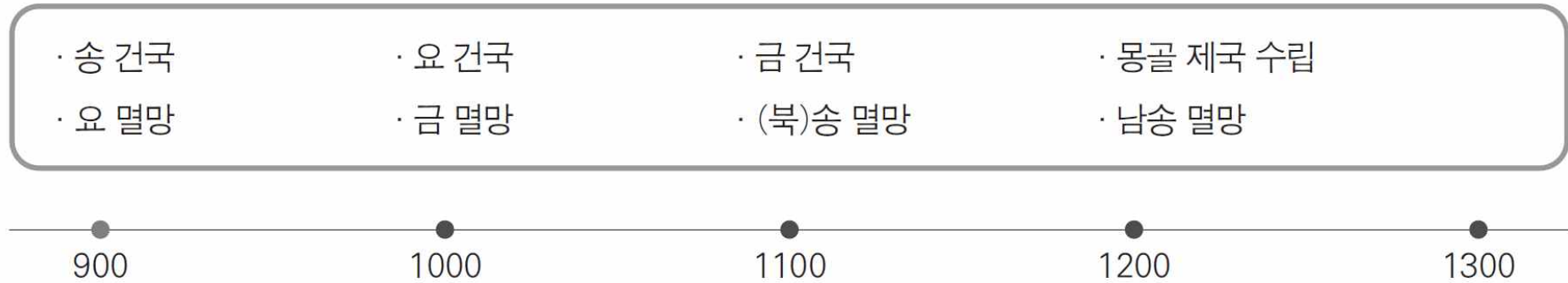


## ▶ 10 ~ 13세기 새로운 왕조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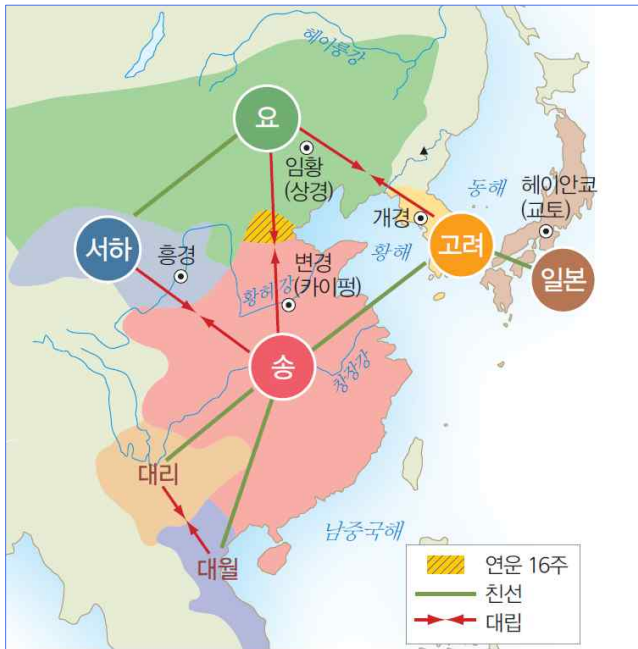


랴오허 강 상류	• 거란 → 요(遼) 건국
중원	• 5대 10국의 분열 시대(907 ~ 960) → 송 건국(962 ~ 1279)
중국 서북 지역	• 탕구트 족 → 서하 건국(1032), 칭제건원(1038)
한반도	• 후삼국 시대(901 ~ 936) → 고려의 건국(918)과 후삼국 통일(936)
일본 열도	• 헤이안 시대(794 ~ 1185) → 가마쿠라 막부(1185 ~ 1333)
북부 베트남 지역	• 응오 왕조(939 ~ 944) → 리 왕조(1009 ~ 1225) → 쩐 왕조(1225 ~ 1400)
만주 지역	• 여진 → 금(金) 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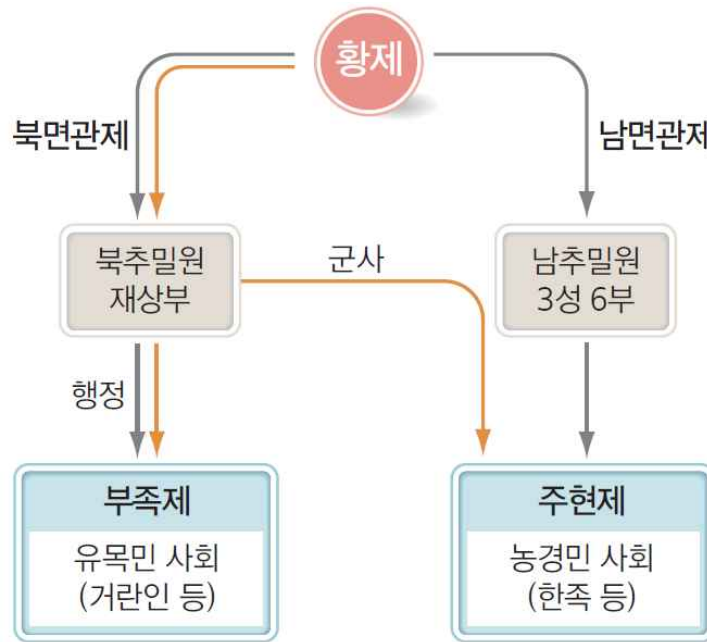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국가들이 나타나 국제 질서가 재편되었다. 랴오허 강 상류 지역에서는 거란(요), 중원에서는 송,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등장하였다.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대월(1054 ~ 1804), 중국 서북 지역에서는 서하가 등장하였다. 12세기에는 만주 지역에서 여진(금)이 성장하여 세력을 떨쳤다. 이 국가들은 서로 사절을 교환하고 교역하면서 다원적인 국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거란과 송은 자주 군사적으로 대립하였고, 서하도 오랫동안 송과 전쟁을 벌였다. 고려와 거란도 군사적으로 충돌하였다.** 일본은 9세기 말부터 대외 관계에 소극적이 되었다. 오랫동안 교류와 대립을 반복하던 신라와 국교를 단절하고, 견당사(630 ~ 894)의 파견도 중지하였다. 1185년에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에 막부를 세우고, 1192년 일왕에게 쇼군\*의 칭호를 받았다. 가마쿠라 막부 역시 대외 관계에 소극적이었으나, 민간 교역이나 문화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야율아보기의 부족 통합과 국가 수립(916) → 발해 정복(926) → 연운 16주 차지(936) → 북송과 전연의 맹약 체결(1004) → 멸망(1125)

10세기 동아시아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거란이었다. 거란은 랴오허 강 상류에 살던 유목민으로, 야율아보기가 부족을 통합하여 거란(요)을 세웠다. 그 후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하여 송을 압박하였으며, 고려를 여러 차례 침공하였다. 송은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란과 맹약을 맺었다.



<11세기의 동아시아>



<북면관·남면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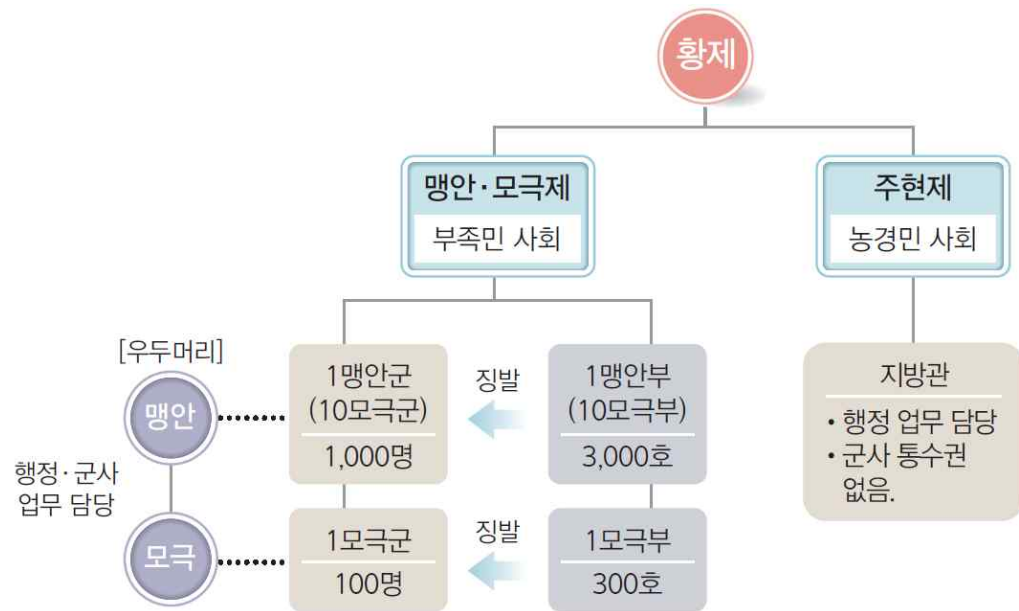
<거란 문지>

탕구트 족이 건국(1032) → 칭제건원(1038) → 북송과 강화 조약(군신 관계, 1044) → 둔황 장악과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성 → 칭기즈칸에 멸망(1227)

11세기에 탕구트가 세운 서하는 비단길을 장악하고 동서 교역을 통해 발전하였다. 서하는 거란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어 평화를 유지하였지만, 송과는 책봉과 교역을 둘러싼 마찰로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송은 매년 비단, 은, 차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하와 화약을 맺었다.

아구다(阿骨打)가 부족 통합 후 건국(1115) → 북송과 연합하여 요 정벌(1125) → 북송을 멸망시키고 화북 점령(1127) → 중도 천도(1153) → 멸망(1234)

여진은 지금의 만주 일대에서 수렵과 농경에 종사하던 민족으로, 완연부의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여 금을 세웠다. 금은 연운 16주의 회복을 노리던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무너뜨리고, 송마저 공격하여 멸망시킨 뒤 화북 지방을 차지하였다. 거란 대신 동아시아의 강자가 된 금은 비단과 은 등 막대한 물자를 받는 조건으로 강남 지방에 세워진 남송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소흥화의, 군신 관계, 1141). 고려와 서하도 금에 조공하고 교역하였다.



북송 건국(960 ~ 1126) → 태조(재위 960 ~ 976)의 문치주의 정책 → 왕안석의 신법(1069) → 정강의 변(1126) → 남송 건국(1127) → 남송 멸망(1279)

북송은 **문치주의를 내세워 절도사 세력을 약화하고 황제권의 강화**에 힘썼다. 그 결과 북방 민족 국가보다 군사력이 열세에 놓이자, 그들과 맹약을 맺고 매년 막대한 물자(세폐)를 제공하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11세기에 **왕안석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신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 시행을 둘러싸고 당쟁이 격화되면서 오히려 국력이 약해졌다. 북송이 멸망한 후 임안(항저우)을 수도로 남송이 세워졌다. **남송은 금과의 전쟁을 꺼려 군신 관계를 맺고** 비단과 은 등의 물자를 바쳤다. 그러나 여러 차례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등 두 나라의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 ① 전연의 맹약(1004)

- 송의 황제와 요의 황제는 형제의 교분을 갖는다.
- 송은 요에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보낸다.
- 양국의 국경은 현 상태로 한다.

- 『속자치통감장편』 권 58

거란과 강화하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 거란에 매년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서로 남조와 북조로 칭하기로 하였다.

- 『송사』

### ② 와

수도를 포위당한 이(가) 에 큰아버지와 조카 관계를 서약한 국서(國書)를 보내고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 얼마 후 이(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 을(를) 공격하였지만 오히려 수도가 함락되고 황제가 사로잡혔다. 이에 일부 황족이 강남으로 옮겨 가 임안(항저우)을 수도로 삼았다.

### ③ 소흥화의(1141)

지금 와(과) 은(는) 화의를 맺어 화이허 강(淮水)과 대산관을 잇는 선으로 국경을 정합니다. 아울러 은(는) 대대손손 삼가 신하의 절의를 지켜  황제의 탄신일과 정월에 사절을 보내 문안 인사를 여쭙고, 매년 봄에 비단 25만 필과 은 25만 냥을 보내겠습니다.

건국(918) → 후삼국 통일(936) → 만부교 사건(942) → 과거제 실시(958) → 북송과 수교(962) → 거란의 제1차 침입(993) → 강동 6주 획득(994) → 강조의 정변(1009) → 거란의 제2차 침입(1010) → 거란의 제3차 침입(1018) → 천리장성 축조(1033 ~ 1044) → 별무반 조직(1104) → 동북 9성 축조(1107) → 금과 군신 관계 체결(1126)

926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뒤 고려에 친선을 요구하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던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거란은 북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993년 고려를 침공하였다. 고려의 서희는 송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조건으로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화약을 맺었다. 이때 고려는 청천강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강동 6주 지역을 차지하였다. 거란은 두 차례 더 고려를 침공하였으나, 고려는 이를 물리쳤다. 이후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으며, 고려는 거란과 조공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였다. 여진이 성장하면서 고려를 위협하자, 윤관은 이들을 물리친 후 동북 지역에 9성을 축조하였다. 이후 여진은 세력을 키워 금(金)을 건국하고 고려에 사대를 요구하였다. 고려 조정에서는 찬반 의견의 대립 끝에,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금에 조공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과 금에 대한 조공과는 별도로 여전히 송 및 남송과 해상 교역을 유지하면서 각종 문물을 교류하였다.



<척경입비도>

### ① 서희의 외교 담판(994)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소.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랴오허 강 중류 부근)이 모두 우리 땅이거늘 어찌 침범이라 하리오. 또 압록강의 안팎도 모두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거주하면서 두 나라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은 다음에 성을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하면 어찌 (그대 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지 않으리오.

- 『고려사』 서희 열전

### ② 고려와 여진의 관계

- (1109년) (고려는) “너희가 9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이전에 했던 약속처럼 하늘에 대고 맹세하라.”라고 하였다. 추장 등은 함주 성문 밖에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맹세하여 말하기를, “지금 이후 대대손손까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 맹세에 변함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망하여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하고 맹세를 마치고 물러갔다. - 『고려사』
- (1126년) 백관을 불러 금을 십길지 말지를 의논하니 모두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겸·척준경 두 사람만 사대를 주장하자 (임금 인종은) 이를 따랐다. - 『고려사』